

March 16 온유, 십자가를 지고

• 마태복음 5:5, 11:29

온유한 자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입니다. ‘온유한’에 쓰인 원어는 본래 속임과 착취를 당해도 속수무책인 무력한 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시 9-10편).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편이시며(슥 7:10; 시 68:5, 146:9),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시 37:11; 사 26:6).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고난과 팽박, 무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억압과 고난에 대해 폭력과 복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함으로써 평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으면 얕잡아 볼 것’이라며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고전 1:18).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무능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방법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마 11:29). 우리는 ‘쉼을 얻는다’에 방점을 찍기 쉽지만, 예수님은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온유는 ‘자기 부인’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고난과 억압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십자가’와 연관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와 방법에 훈련된 자들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계 22:5). 땅은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을 뜻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된 인생과 가정, 일터, 사역의 현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까?

❶ 고난과 억압으로 속수무책일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❷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나를 보내신 ‘땅’은 어디입니까?